

일부 대학생 음주문제와 가족기능과의 관련성

김옥순¹ · 박종² · 류소연² · 강명근² · 민순³ · 김혜숙^{4*} · 하윤주³

¹Department of Public Health,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Chosun University,
²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³조선간호대학, ⁴초당대학교 간호학과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Function and Drinking Problems among some University Students

Ok Soon Kim¹, Jong Park², So Yeon Ryu², Myung Geun Kang², Soon Min³, Hye Sook Kim^{4*}, Yun Ju Ha³

¹Department of Public Health,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Chosun University,
²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Chosun University,
³Chosun Nursing College,
⁴Department of Nursing, Chodang University

ABSTRACT

Purpose: We interviewed 500 students attending to universities in Gwangju and Jeonnam using a questionnaire. The questionnaire was composed of some questions on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cademic characteristics, health-related behaviors, family function, and drinking problems.

Methods: The data collected were analysed with uses of t-test, dispersion analysis, correlations analysis and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As a result of the simple analysis we found that variables related to drinking problems of college students were religion, family, residence, parents' job, living standard, major, academic year, exercise, parents' drinking, parents' attitude to drinking, drinking quantity, intimacy, conflicts, and upbringing tendency. As a result of the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we found that the higher intimacy between family members, deterioration in behaviors, family and personal relations, and social function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low.

Conclusion: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drinking problems of college students had significant relations with intimacy, conflicts and upbringing tendency and suggests that an approach in an aspect of family functions is important to overcome drinking problems of college students.

Key words : Drinking problems, Family function, University students

(2009년 11월 20일 접수, 2009년 12월 10일 채택)

*Corresponding author : Hye Sook Kim,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odang University, 1644 Muan-gun, Jeonlanamdo, 534-701, Korea.

Tel: 82-61-450-1812, Fax: 82-61-450-1810, e-mail: khs5@chodang.ac.kr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대학생 음주자 비율은 90% 이상으로 일반 성인 음주율인 64.3%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한국 보건사회 연구, 2003). 미국 대학생들의 음주율이 84~86%(Wechsler, Davenport Dowdall, Moeykens, & Castill, 1949, US DHHS, 1996)인 것을 감안할 때 한국 대학생들의 음주율이 꽤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대학 사회의 이런 높은 음주자 비율은 음주 후유증으로 인한 수업 결손이나 학습능력의 저하, 경제적 손실, 음주운전 사고, 폭력, 원치 않는 성관계, 인간관계 문제,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등과 높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윤혜미, 2000).

대학생들이 음주를 하는 요인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 졸업 후 장래의 진로, 전공 학과에 대한 불만족, 친구들과의 관계 등의 문제 상황들을 잘 대처하고 적응하지 못할 때 술을 마시는 횟수와 양이 증가하며 여러 음주문제에 노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김용석, 1998). 그동안 대학생 음주와 관련된 연구들에서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으로 개인적 요인과 부모요인, 친구요인, 대중매체(김용순, 2003)와 가족기능, 가족 관계, 가족 환경(윤주혜, 2001; 임윤용, 2005), 등의 사회적 요인의 연구가 제시되고 있다.

그 중 가족변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음주문제 가족력, 부모의 양육 태도, 자녀의 음주문제에 대한 부모의 태도, 부모의 음주 태도 및 빈도 등을 대학생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제시하고 있다(송은하, 1996; 부정민, 1999; 박종순, 2000; 김용순, 2003). 반면, 가족기능과 음주문제에 관한 연구는 이에 비해 미약한 상태이다.

근래에 와서 많은 연구들은 알코올리즘의 발생 및 치료에 있어 가족이 중요한 요소임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부모의 음주 형태가 청소년의 음주시작 및 음주량과 관련이 있으며 청소년의 음주습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권지현, 1996). 또한

알코올 중독자에게 가족의 요인은 음주 증가 요인 또는 치료 요인 등으로 작용하여 치료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이병철 등, 1991). 이와 같이 가족구성원들과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가족기능은 대학생 음주문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기능을 하위영역 친밀감, 갈등, 양육방식 등으로 세분화하여 음주문제 하위영역인 행동상의 문제, 가족 및 대인관계의 손상, 사회적 기능 손상과의 관련성을 알아봄으로써 대학생들의 음주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한 개인의 문제가 가족구성원간의 상호작용 차원에서 큰 문제로 발전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대학생의 음주문제가 가족 환경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대학생의 음주문제와 가족 기능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되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학업 특성, 건강관련행태 및 음주 특성과 친밀감, 갈등, 양육방식 등의 가족기능 특성을 파악한다.
- 2) 대학생 음주문제를 행동상의 문제, 가족 및 대인관계 손상, 사회적 기능 손상 등으로 나누어 파악한다.
- 3) 일반적 특성 및 학업 특성, 건강관련행태 및 대학생 음주 특성과 음주 문제와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 4) 친밀감, 갈등, 양육방식 및 가족기능과 음주문제와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 5) 제반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가족기능과 음주문제와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현재 G광역시와 J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4개의 4년제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 2008년 9월 2일부터 9월 25일 까지 자료수집

이 가능하고 본 연구의 목적에 동의하고 설문지 조사를 허락한 남녀 대학생 500명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설문지의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기록이 누락된 63명을 제외한 437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자료수집 및 방법

G광역시, J지역 4년제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남녀 대학생들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한 후 조사에 동의한 학생들에게 무기명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 설문지의 구성은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성별, 종교, 가족관계, 거주상태, 부모직업유무, 생활형편), 학업특성(전공, 학년, 동아리활동, 대학 생활 만족도), 건강 관련 행태 및 대학생 음주 특성 관련(흡연유무, 운동유무, 부모음주력, 음주에 대한 부모 태도, 음주량), 가족기능(친밀감, 갈등, 양육방식)과 음주 문제(사회적 기능 손상, 행동상의 문제, 가족 및 대인관계 손상) 등으로 이루어졌다.

1) 가족기능

본 연구에서는 Noller(1992)에 의해 개발된 ICPS 가족기능척도(ICPS Family Functioning Scales : ICPS-FF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전적으로 반대' 1점에서 '전적으로 동의' 7점까지 측정되는 리커트형 7점 척도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ICP는 가족간의 응집력을 측정하는 친밀감(intimacy), 가족들간의 관계양상을 측정하는 갈등(conflict), 가족간의 적응력을 측정하는 양육방식(parenting style)의 세 하위척도를 말한다. 각 하위척도의 점수를 합산한 것이 ICPS-FFS의 점수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기능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s $\alpha = .873$ 이었다.

2) 음주문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음주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신행우(1998)의 대학생 음주관련문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척도는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음주관련 문제들을 사회적 기능 손상, 행동상의 문제, 가족 및 대인관계 손상 3가지 영역으로 나누었으며 각 문항은 '그런 적 없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5점까지 측정되는 리커트형 5점 척도로 사용하였다. 측정 점수가 높을수록 음주문제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음주 문제 척도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s $\alpha = .962$ 이었다.

4.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의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서술통계와 t-test 및 ANOVA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와 다변량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특성

1) 일반적 특성 및 학업 특성

종교가 있는 경우가 56.5%, 없는 경우는 43.5%이었고 종교 분포는 기독교(33.2%), 천주교(10.3%), 불교(9.8%), 기타(3.2%)인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는 부모님 두 분과 함께 산다고 응답한 경우가 70.1%로 가장 많았고, 거주상태는 가족과 같이 거주 266명(61.4%), 자취 35명(19.6%), 기숙사 62명(14.3%), 기타 20명(4.6%) 이었다. 부모 직업은 두 분 모두 직업이 있는 경우가 217명(52.0%)으로 가장 많았고 아버지만 141명(33.8%), 어머니만 23명(5.5%), 모두 직업 없음 36명 (8.6%) 이었다. 생활형편인식은 보통이다가 83.6%로 부유, 가난한 경우에 비해 높았다.

학업특성에서 전공은 자연계열이 83.6%로 가장 높았고, 학년은 1학년이 34.3%, 2학년 42.8%, 3학년 19.7% 4학년 3.2%이었다. 동아리 활동은 비활동자가 70.6%로 활동자 보다 많았고, 대학생활 만족도에서는 보통이다가 56.9%로 높았고 만족하다가 26.4% 불만족하다가 16.7% 순이었다<표 1>.

〈표 1〉 대상자 일반적 특성 및 학업 특성

변수	성 별		n(%)
	남	여	
종교			
기독교	66(32.5)	79(33.8)	145(33.2)
천주교	17(8.4)	28(12.0)	45(10.3)
불교	16(7.9)	27(11.5)	43(9.8)
무교	98(48.3)	92(39.3)	190(43.5)
기타	6(3.0)	8(3.4)	14(3.2)
가족관계			
부모님 두분과 함께	147(73.1)	149(67.4)	296(70.1)
기타	28(13.9)	26(11.8)	54(12.8)
부모님 같이 살지 않음	26(12.9)	46(20.8)	72(17.1)
거주상태			
가족과 같이 거주	115(56.7)	151(65.7)	266(61.4)
자취	50(24.6)	35(15.2)	85(19.6)
기숙사	26(12.8)	36(15.7)	62(14.3)
기타	12(5.9)	8(3.5)	20(4.6)
부모 직업 유무			
모두 직업있음	92(46.2)	125(57.3)	217(52.0)
아버지만	76(38.2)	65(29.8)	141(33.8)
어머니만	15(7.5)	8(3.7)	23(5.5)
모두 직업없음	16(8.0)	20(9.2)	36(8.6)
생활형편			
부유	4(2.0)	8(3.4)	12(2.8)
보통	164(81.6)	199(85.4)	363(83.6)
가난	33(16.4)	26(11.2)	59(13.6)
전공			
인문계열	15(7.5)	448(21.6)	63(14.9)
자연계열	180(90.0)	173(77.9)	353(83.6)
예체능계열	5(2.5)	1(0.5)	6(1.4)
학년			
1학년	64(31.7)	84(36.5)	148(34.3)
2학년	80(39.6)	105(45.7)	185(42.8)
3학년	48(23.8)	37(16.1)	85(19.7)
4학년	10(5.0)	4(1.7)	14(3.2)
동아리활동 여부			
예	63(31.0)	64(27.9)	127(29.4)
아니오	140(69.0)	165(72.1)	305(70.6)
대학생활 만족도			
불만족	27(13.3)	46(19.7)	73(16.7)
보통	121(59.6)	127(54.5)	248(56.9)
만족	55(27.1)	60(25.8)	115(26.4)

2) 건강관련 행태 및 가족기능 특성

현재 흡연은 매일 1개피 이상 피우는 경우로 18.4%, 과거흡연 6.4%, 비흡연 75.2%이었다. 운동유무는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72.0%로 높았고, 부모가 술을 마시는 경우가 81.8%이었다. 부모가 학생의 음주에 대해 관용적인 경우가 남학생 38.7%, 여학생 25.3%이었다. 1회당 마시는 음주량은 소주1-4잔 167명(38.5%), 소주5-9잔 134명(30.9%), 소주10잔이상 100명(23.0%), 전혀 안마시는 경우가 33명(7.6%)순으로 나타났다. 가족기능 점수는 친밀감이

58.67±12.10(평균±표준편차), 양육방식 36.96±7.63, 갈등 34.52±9.02이었다<표 2>.

2. 연구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음주문제 순위

연구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음주문제 순위에서는 사회적 기능 손상에서 남녀모두 과음으로 지각하는 경우가 1위, 약속시간 늦거나 못 지킨 경우가 2위였고, 행동상의 문제에서는 말다툼이 1위, 과격한 행동이 2위로 남녀 모두 같았다. 가족 및 대인관계 손상에서는 부모님이 술 마시는 것에 대해 화 또는 걱정

<표 2> 대상자 건강 관련 행태 및 가족기능

변수	성별		n(%)
	남	여	
흡연			
현재흡연	68(34.9)	10(4.4)	78(18.4)
과거흡연	20(10.3)	7(3.1)	27(6.4)
비흡연	107(54.9)	212(92.6)	319(75.2)
운동유무			
예	72(36.5)	48(20.7)	120(28.0)
아니오	125(63.5)	184(79.3)	309(72.0)
부모 음주력			
안마심	27(18.5)	31(17.9)	58(18.2)
마심	119(81.5)	142(82.1)	261(81.8)
음주에 대한 부모 태도			
관용적	75(38.7)	57(25.3)	132(31.5)
보통	95(49.0)	103(45.8)	198(47.3)
부정적	24(12.4)	65(28.9)	89(21.2)
음주량(/회)			
비음주	6(3.0)	27(11.7)	33(7.6)
소주 1-4잔	57(28.1)	110(47.6)	167(38.5)
소주 5-9잔	69(34.0)	65(28.1)	134(30.9)
소주 10잔이상	71(35.0)	29(12.6)	100(23.0)
가족기능점수(M±SD)			
친밀감	59.09±12.50	58.28±11.73	58.67±12.10
갈등	35.32±10.10	33.78± 7.85	34.52± 9.02
양육방식	36.91± 7.94	37.00± 7.35	36.96± 7.63

을 하는 것이 남녀 공동 1위였으며, 남자 2위는 말다툼, 여자 2위는 부모님 혹은 이성친구와 마찰 등이었다(표 3).

3. 연구대상자의 특성과 음주문제와의 관련성

1) 일반적 특성과 음주문제와의 관련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음주에 따른 음주문제와의 관련성을 보면 성별에서 남자의 음주문제 점수는 31.2±14.2, 여자는 25.7±9.7로 남자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01). 그러나 종교, 가족관계, 거주

형태, 부모직업 유무는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음주문제 중 가족 및 대인관계 손상과의 관련성에서도 남자의 가족 및 대인관계 손상 점수는 11.2±5.3, 여자는 9.4±4.0으로 남자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01). 그러나 종교, 가족관계, 거주형태, 부모직업 유무는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표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음주문제 중 사회적 기능 손상과의 관계를 보면 성별에서 남자의 사회적 기능 손상 점수는 10.2±4.6, 여자는 8.3±3.8로 남자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01). 그러나 종교, 가족

〈표 3〉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음주문제의 순위

변 수	남(M±SD)	순위	여(M±SD)	순위
사회적 기능 손상				
과음으로 지각	2.02±1.02	1	1.53±0.84	1
약속시간 늦거나 못 지킨적	1.87±0.95	2	1.44±0.80	2
주어진 일을 할 수 없다	1.62±0.94	3	1.43±0.79	3
결장이나 결석	1.61±0.92	4	1.34±0.79	5
수업이나 성적취득 또는 일 하는데 지장	1.58±0.93	5	1.29±0.68	6
의무나 중요한 일 제대로 못함	1.56±0.91	6	1.36±0.78	4
행동상의 문제				
말다툼	1.67±0.95	1	1.34±0.75	1
과격행 행동	1.66±0.90	2	1.33±0.69	2
분노	1.55±0.94	3	1.29±0.64	3
음주나 음주 후 행동 때문에 싸운적	1.54±0.92	4	1.29±0.73	3
언쟁	1.49±0.85	5	1.25±0.64	5
사람을 때린 적	1.48±0.92	6	1.19±0.60	7
물건을 던지거나 부순적	1.48±0.87	6	1.13±0.49	10
치고박고 싸운적	1.43±0.86	8	1.16±0.62	9
술 때문에 사고	1.40±0.80	9	1.16±0.54	8
술주정	1.39±0.75	10	1.24±0.64	6
가족 및 대인관계 손상				
부모님이 술 마시는 것에 대해 화 또는 걱정	1.83±1.12	1	1.75±1.16	1
말다툼	1.67±0.95	2	1.34±0.75	3
과격행 행동	1.66±0.90	3	1.33±0.69	4
싸움에 휘말린 적	1.57±0.92	4	1.17±0.58	7
음주나 음주 후 행동 때문에 싸운적	1.54±0.92	5	1.29±0.73	5
윗사람으로부터 꾸중	1.51±0.88	6	1.26±0.67	6
부모님 혹은 이성친구와 마찰	1.44±0.80	7	1.37±0.83	2

〈표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음주문제와의 관련성

변수	음주문제			가족 및 대인관계 손상		
	M±SD	t or F	p	M±SD	t or F	p
성별						
남	31.22±14.20	4.473	<0.001	11.17±5.26	3.776	<0.001
여	25.73± 9.68			9.42±3.96		
종교						
기독교	28.98±13.12	0.538	0.708	10.37±4.88	0.232	0.920
천주교	28.67±12.38			10.29±4.69		
불교	27.85±10.30			9.95±3.42		
무교	27.60±11.79			10.14±4.77		
기타	31.79±16.79			11.21±5.67		
가족관계						
부모님 두분과 함께	28.87±12.49	0.399	0.672	10.44±4.82	0.284	0.753
기타	27.18±11.24			9.92±4.27		
부모님 같이 살지 않음	28.38±13.28			10.22±4.77		
거주형태						
가족과 같이 거주	28.41±12.68	2.123	0.097	10.41±4.89	1.376	0.250
자취	30.79±14.27			10.67±5.17		
기숙사	25.69± 8.02			9.17±3.18		
기타	26.50± 8.57			10.35±3.96		
부모 직업 유무						
부모님 모두 있음	28.52±11.87	0.773	0.509	10.27±4.62	0.534	0.659
아버지만	29.56±13.83			10.71±5.13		
어머니만	25.45± 7.35			9.86±3.93		
부모님 모두 없음	27.44±13.34			9.74±4.58		

관계, 거주형태, 부모직업 유무는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음주 문제 중 행동상의 문제와의 관련성을 보면 성별에서 남자의 행동상의 문제 점수는 15.0±7.3, 여자는 12.1±4.8로 남자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01). 그러나 종교, 가족관계, 거주형태, 부모직업 유무는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표 4-1).

2) 학업 특성과 음주문제와의 관련성

대상자의 학업 특성과 음주문제와의 관련성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의 음주문제 점수는 30.1±12.5, 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의 음주문제 점수는 27.6±12.3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이 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에 비해 높았으며 경계역 수준의 유의성을 보였다

(p=0.065). 그러나 전공 학년, 대학생활 만족도와는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대상자 학업 특성과 음주문제 중 가족 및 대인관계 손상과의 관련성을 보면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 점수는 10.9±4.8, 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의 가족 및 대인관계 손상 점수는 10.0±4.7로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이 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보다 가족 및 대인관계 손상 점수가 높았으며 경계역 수준의 유의성을 보였다(p=0.066). 그러나 전공 학년, 대학생활 만족도와는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표 5).

대상자의 학업 특성과 음주문제 중 사회적 기능 손상과의 관련성에서 인문계열을 전공한 학생의 사회적 기능 손상 점수는 7.9±3.8, 자연계열을 전공한

〈표 4-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음주문제와의 관련성

변수	사회적 기능 손상			행동상의 문제		
	M±SD	t or F	p	M±SD	t or F	p-값
성별						
남	10.17± 4.62	4.463	<0.001	14.99±7.31	4.604	<0.001
여	8.30± 3.76			12.14±4.77		
종교						
기독교	9.34± 4.51	0.720	0.578	13.86±6.59	0.793	0.530
천주교	9.90± 4.65			13.80±6.75		
불교	9.20± 3.92			12.93±4.99		
무교	8.85± 4.03			13.12±5.96		
기타	10.00± 5.32			15.64±8.59		
가족관계						
부모님 두분과 함께	9.47± 4.39	0.864	0.422	13.48±6.27	0.297	0.743
기타	8.86± 4.09			13.47±6.08		
부모님 같이 살지 않음	8.84± 4.22			14.14±6.87		
거주형태						
가족과 같이 거주	9.11± 4.33	1.718	0.163	13.58±6.38	1.964	0.119
자취	10.10± 4.82			14.52±7.28		
기숙사	8.72± 3.65			11.95±4.05		
기타	8.37± 2.91			13.58±5.71		
부모 직업 유무						
부모님 모두 있음	9.28± 4.14	0.791	0.499	13.36±5.99	0.360	0.782
아버지만	9.59± 4.60			13.97±6.88		
어머니만	8.76± 3.83			12.95±5.35		
부모님 모두 없음	8.41± 4.34			14.00±7.17		

학생점수는 9.5±4.4, 예체능 계열을 전공한 학생은 9.4±2.9로 자연계열을 전공한 학생들에서 높았으며 전공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34). 동아리 활동 유무에서는 활동을 하는 학생의 사회적 기능 손상 점수는 10.0±4.6, 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점수는 8.9±4.1로 활동을 하는 학생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18). 그러나 학년, 대학생활 만족도와는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대상자의 학업특성과 음주문제 중 행동상의 문제에서는 전공, 학년, 동아리 활동, 대학생활만족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표 5-1).

3) 건강관련행위와 음주문제와의 관련성

연구 대상자의 건강관련행위와 음주문제와의 관련성을 보면 흡연유무에서 매일 흡연하는 학생의 음주 문제 점수는 34.6±15.8, 과거흡연은 28.3±10.1, 비흡연은 26.7±10.7로 흡연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한번 음주시의 음주량에 따라서는 비음주학생의 음주 문제 점수는 21.3±5.9, 소주 1-4잔 마시는 경우는 25.5±10.5, 소주 5-9잔을 마시는 경우는 29.2±12.3, 소주 10잔이상 마시는 경우는 34.5±14.3으로 음주량에 따라 유의한 관련을 보였다(p<0.001). 그러나 운동유무, 음주에 대한 부모 태도,

〈표 5〉 대상자의 학업 특성과 음주문제와의 관련성

변 수	음주 문제			가족 및 대인관계 손상		
	M±SD	t or F	p	M±SD	t or F	p
전공						
인문계열	26.46±12.50	0.891	0.411	9.59±4.53	1.248	0.288
자연계열	28.78±12.43			10.40±4.75		
예체능계열	29.75±14.36			12.40±6.30		
학년						
1학년	27.28±10.31	1.031	0.379	9.94±3.95	1.411	0.239
2학년	29.67±14.51			10.83±5.53		
3학년	27.78±11.45			9.84±4.23		
4학년	27.77± 6.90			9.43±2.59		
동아리활동						
예	30.11±12.50	1.850	0.065	10.93±4.78	1.843	0.066
아니오	27.63±12.26			9.99±4.66		
대학 생활 만족도						
불만족	28.05±12.55	0.836	0.434	10.07±4.51	0.750	0.473
보통	28.99±12.91			10.49±4.93		
만족	27.14±10.87			9.85±4.29		

〈표 5-1〉 대상자의 학업특성과 음주문제와의 관련성

변 수	사회적 기능 손상			행동상의 문제		
	M±SD	t or F	p	M±SD	t or F	p
전공						
인문계열	7.88± 3.82	3.425	0.034	13.13±6.16	1.107	0.331
자연계열	9.46± 4.38			13.55±6.31		
예체능계열	9.40± 2.88			17.17±9.02		
학년						
1학년	8.99± 4.15	0.245	0.865	12.63±4.75	2.171	0.091
2학년	9.38± 4.61			14.40±7.47		
3학년	9.20± 3.95			13.36±6.16		
4학년	9.54± 4.13			12.57±2.92		
동아리활동						
예	9.98± 4.58	2.378	0.018	13.94±6.24	0.901	0.368
아니오	8.88± 4.13			13.33±6.31		
대학 생활 만족도						
불만족	8.97± 4.22	1.290	0.276	13.63±6.61	0.333	0.717
보통	9.48± 4.43			13.66±6.57		
만족	8.71± 4.00			13.08±5.39		

부모음주력은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연구 대상자의 건강관련 행위와 가족 및 대인관계 손상과의 관계를 보면 흡연유무에서 매일 흡연하는 학생의 가족 및 대인관계 손상 점수는 12.0±5.7, 과거 흡연은 10.6±4.2, 비흡연은 9.8±4.3으로 유의한 관련을 보였다(p=0.001). 한번 음주시의 음주량에 따라서는 비음주학생의 점수는 7.5±2.0, 소주 1-4잔 마시는 경우는 9.3±4.1, 소주 5-9잔 마시는 경우는 10.6±4.8, 소주 10잔 이상 마시는 경우는 12.4±5.3으로 소주 10잔 이상 마시는 경우가 높았고 유의한 관련을 보였다(p<0.001). 그러나 운동유무, 음주에 대한 부모 태도, 부모음주력은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표 6>.

연구 대상자의 건강관련 행위와 사회적 기능 손상과의 관계는 매일 흡연하는 학생의 사회적 기능 손상 점수는 11.3±5.0, 과거흡연은 9.2±3.4, 비흡연은 8.6±4.0으로 유의한 관련을 보였고(p<0.001), 비음주학생의 사회적 기능 점수는 6.4±1.6, 소주 1-4잔 마시는 경우는 8.0±3.5, 소주 5-9잔 마시는 경우는 9.7±4.4, 소주 10잔 이상 마시는 경우는 11.4±4.9로 소주 10잔 이상 마시는 경우가 높았으며 유의한 관련을 보였다(p<0.001). 그러나 운동유무, 음주에 대한 부모 태도, 부모음주력은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연구 대상자의 건강관련 행위와 행동상의 문제와의 관련성을 보면 흡연유무에서 매일 흡연하는 학생의

<표 6> 대상자의 건강관련행위와 음주문제와의 관련성

변수	음주 문제			가족 및 대인관계 손상		
	M±SD	t or F	p	M±SD	t or F	p
흡연유무						
매일	34.60±15.77	12.724	<0.001	12.03±5.73	7.253	0.001
과거흡연	28.31±10.13			10.59±4.19		
비흡연	26.72±10.70			9.76±4.26		
운동유무						
예	27.01±11.73	-1.293	0.197	9.60±4.35	-1.696	0.091
아니오	28.74±12.20			10.46±4.70		
음주에 대한 부모태도						
관용적	28.91±13.27	0.248	0.781	10.48±5.02	0.577	0.562
보통	28.03±11.79			9.98±4.46		
부정적	27.90±10.66			10.46±4.29		
부모음주력						
안마심	26.58±11.59	-1.300	0.195	9.80±4.45	-0.937	0.349
마심	28.94±12.03			10.45±4.68		
음주량(/회)						
비음주	21.34± 5.89	14.715	<0.001	7.48±1.97	13.010	<0.001
소주 1-4잔	25.51±10.45			9.28±4.10		
소주 5-9잔	29.22±12.28			10.61±4.78		
소주 10잔 이상	34.48±14.29			12.36±5.28		

행동상의 문제 점수는 16.3±8.0, 과거흡연은 13.9±5.9, 비흡연은 12.7±5.4로 유의한 관련을 보였다(p<0.001). 음주량에 따라서는 비음주 학생의 행동상의 문제 점수는 10.7±3.2, 소주 1-4잔 마시는 경우는 12.4±5.3, 소주 5-9잔 마시는 경우는 13.7±6.4, 소주 10잔 이상 마시는 경우는 16.1±7.5로 유의한 관련을 보였다. 그러나 운동유무, 음주에 대한 부모 태도, 부모음주력에서는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표 6-1).

4) 기타변수와 음주문제와의 관련성

대상자의 특성, 가족기능과 음주문제와의 관련성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 친밀감(p=0.000), 양육방식(p=0.007)이 높을수록 음주문제에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갈등(p=0.010)은 높을수록 음주문제가 높

게 나타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연구대상자의 특성, 가족기능과 사회적 기능 손상의 관련성을 상관분석을 통하여 알아본 결과 나이(p=0.017)가 많을수록, 친밀감(p=0.000), 양육방식(p=0.019)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기능 손상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갈등(p=0.021)은 높을수록 사회적 기능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대상자의 특성, 가족기능과 행동상의 문제와의 관련성을 상관분석을 통하여 알아본 결과 친밀감(p=0.002), 양육방식(p=0.029)이 높을수록 행동상의 문제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갈등(p=0.001)은 높을수록 행동상의 문제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대상자의 특성, 가족기능과, 가족 및 대인관계 손상

〈표 6-1〉 대상자의 건강관련행위와 음주문제와의 관련성

변수	사회적 기능 손상			행동상의 문제		
	M±SD	t or F	p	M±SD	t or F	p
흡연유무						
매일	11.34± 4.96	12.562	<0.001	16.25±8.01	9.863	<0.001
과거흡연	9.23± 3.40			13.85±5.94		
비흡연	8.64± 3.96			12.74±5.44		
운동유무						
예	8.86± 4.26	-0.931	0.352	12.86±5.67	-1.199	0.231
아니오	9.30± 4.24			13.67±6.31		
음주에 대한 부모태도						
관용적	9.41± 4.43	0.279	0.757	13.76±6.56	0.246	0.782
보통	9.05± 3.99			13.34±6.03		
부정적	9.22± 4.56			13.23±5.65		
부모음주력						
안마심	8.28± 3.88	-2.021	0.044	12.80±5.75	-0.817	0.415
마심	9.52± 4.22			13.54±6.13		
음주량(/회)						
비음주	6.38± 1.56	18.974	<0.001	10.72±3.21	9.551	<0.001
소주 1-4잔	8.04± 3.51			12.37±5.29		
소주 5-9잔	9.71± 4.36			13.69±6.35		
소주 10잔 이상	11.44± 4.86			16.13±7.52		

과의 관련성을 상관분석을 한 결과 나이(p=0.046), 친밀감(p=0.000), 양육방식(p=0.012)이 높을수록 가족 및 대인관계 손상에 있어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갈등은(p=0.003) 높을수록 가족 및 대인관계 손상이 높았다(표 7).

4.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학생의 가족기능이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족기능의 특성인 친밀감(p=0.009)이 높을수록 음주

문제가 감소하였고, 음주량에서는 비음주자에 비해 소주 10잔 이상(p=0.002), 5-9잔(p=0.077) 마실 때 음주문제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에 비해 여자에서 유의하게 낮았다(p=0.062). 이들 변수의 음주문제에 대한 설명력은 20.1%이었다(표 8).

연구 대상자의 특성과, 가족기능이 음주문제 중 행동상의 문제와의 회귀 분석 결과 성별에서 여자가 남자에 비해 행동상의 문제가 낮은(p=0.014)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량에 따라서는 소주 10잔 이상 마시는

〈표 7〉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상관관계

변수	음주문제		사회적 기능 손상		행동상의 문제		가족 및 대인관계 손상	
	상관계수	p	상관계수	p	상관계수	p	상관계수	p
나이	-0.082	0.101	-0.117*	0.017	-0.028	0.570	-0.098*	0.046
한달평균 용돈	0.074	0.158	0.072	0.165	0.074	0.153	0.089	0.087
친밀감	-0.217**	0.000	-0.217**	0.000	-0.166**	0.002	-0.191**	0.000
갈등	0.141**	0.010	0.124*	0.021	0.174**	0.001	0.158**	0.003
양육방식	-0.140**	0.007	-0.122*	0.019	-0.113*	0.029	-0.130*	0.012

* p<0.05 , ** p<0.01

〈표 8〉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β	t	p
성별(여/남)	-2.869	-1.876	0.062
흡연유무(과거흡연/비흡연)	-1.129	-0.425	0.671
(매일흡연/비흡연)	2.463	1.220	0.223
음주량(소주10잔이상/안마십)	9.990	3.057	0.002
(소주5-9잔/안마십)	5.557	1.777	0.077
(소주1-4잔/안마십)	4.071	1.342	0.181
친밀감	-0.265	-2.618	0.009
갈등	0.124	1.597	0.111
양육방식	0.114	0.718	0.473

R²=0.201

〈표 8-1〉 음주문제 중 행동 상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β	t	p
성별(여/남)	-1.931	-2.471	0.014
흡연유무(과거흡연/비흡연)	-0.704	-0.513	0.609
(매일흡연/비흡연)	0.852	0.826	0.409
음주량(소주10잔이상/안마십)	3.654	2.170	0.031
(소주5-9잔/안마십)	1.773	1.098	0.273
(소주1-4잔/안마십)	1.530	0.976	0.330
친밀감	-0.117	-2.259	0.025
갈등	0.080	1.999	0.047
양육방식	0.061	0.753	0.452

R²=0.166

〈표 8-2〉 음주문제 중 가족 및 대인관계 손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β	t	p
성별(여/남)	-0.875	-1.473	0.142
흡연유무(과거흡연/비흡연)	-0.537	-0.515	0.067
(매일흡연/비흡연)	0.308	0.391	0.696
음주량(소주10잔이상/비음주)	3.726	2.906	0.004
(소주5-9잔/비음주)	2.141	1.760	0.080
(소주1-4잔/비음주)	1.587	1.344	0.180
나이	-0.014	-0.334	0.738
친밀감	-0.077	-1.948	0.052
갈등	0.058	1.929	0.055
양육방식	0.024	0.393	0.695

R²=0.156

(p=0.031) 경우에 높게 나타났고, 가족들과의 친밀감(p=0.025)은 높을수록 낮았으며, 갈등(p=0.047)이 높을수록 행동상의 문제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16.6% 이었다(표 8-1).

연구 대상자의 특성과, 가족기능이 음주문제 중 가족 및 대인관계 손상문제와의 회귀 분석 결과 과거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낮았고(p=0.067), 음주량에 따라서는 1회 음주량이 소주 10잔 이상(p=0.004), 소주 5-9잔(p=0.080)인 경우가 비음주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가족 특성 중 친밀감

(p=0.052)이 높을수록 가족 및 대인관계 손상이 낮았으며, 갈등이 높을수록 더 높았다(p=0.055).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15.6% 이었다(표 8-2).

대상자의 특성과 가족기능이 음주문제 중 사회적 기능 손상문제와의 회귀 분석 결과 한 번 음주시 음주량에서 소주 10잔 이상 마시는 경우(p=0.010)와, 소주5-9잔(p=0.036)마시는 경우에 사회적 기능손상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가족기능과 사회적 기능 손상에서는 친밀감이 높을수록(p=0.000), 양육방식이(p=0.064)이 좋을수록 사회적 기능손상이 감소하였

<표 8-3> 음주문제 중 사회적 기능 손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β	t	p
성별(여/남)	-0.603	-0.970	0.333
전공(자연계열/인문계열)	0.227	0.195	0.845
(예체능계열/인문계열)	-0.431	-0.106	0.916
동아리활동(활동/비활동)	0.937	1.624	0.106
흡연유무(과거흡연, 현재비흡연/비흡연)	-0.319	-0.302	0.763
(매일흡연/비흡연)	0.900	1.101	0.272
부모음주력(마심/안마심)	0.608	0.831	0.407
음주량(소주10잔이상/비음주)	3.455	2.602	0.010
(소주5-9잔/비음주)	2.677	2.113	0.036
(소주1-4잔/비음주)	1.952	1.579	0.116
나이	0.049	0.733	0.465
친밀감	-0.150	-3.567	0.000
갈등	-0.004	-0.116	0.908
양육방식	0.122	1.862	0.064

R²=0.219

다.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21.9% 이었다(표 8-3).

IV. 고 찰

본 연구는 대학생의 음주문제 특성을 파악하고 가족기능과 음주문제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하였다.

본 연구결과, 가족기능 요소인 친밀감은 가족들간의 응집력있는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가족들간의 사랑과 존중으로 서로 돕고 의지하며 서로에게 진실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런 친밀감이 있는 가족의 일원인 대학생은 그렇지 않는 학생보다 음주문제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친밀감과 대학생 음주문제와는 의미있는 역 상관관계에 있다는 연구결과 윤주혜(2001), 박봉전(2001)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친밀감과 음주문제 중 행동상의 문제와의 관계를 보면 친밀감이 낮을수록 과격한 행동이나 말다툼 등의 문제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Garbarino 등(1984)이 가족과 청소년의 문제에서 가족기능이 극단적인 수준일 때 가족구성원의 건전한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고 더

많은 개인 병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친밀감과 음주문제 중 가족 및 대인관계 손상과의 관계는 친밀감이 낮을수록 가족, 이성친구와의 언쟁 등의 문제가 증가하는 경계역 수준의 유의성을 보였고, 음주문제 중 사회적 기능 손상과의 관계에서는 친밀감이 낮을수록 과음으로 인한 결강이나, 지각 또는 일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경향이 증가하였다. 이는 대학생 음주문제는 잦은 결석과 학습 부진등과 상관관계가 높다는 김의숙(2002)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가족기능요소인 갈등은 가족들 상호체계에서 공감도가 떨어지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로 갈등과 음주문제와는 유의하지가 않았고, 갈등과 음주문제 중 행동상의 문제와의 관계를 보면, 갈등이 높을수록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등 과격한 행동상의 문제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갈등과 음주문제 중 가족 및 대인관계 손상과의 관계를 보면, 갈등이 높을수록,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가 손상되는 경계역 수준의 유의성을 보였다. 이는 김용석(1999)의 연구에서도 가족들과의 관계 양상이 좋지 않을수록 친구나 타인과의 관계가 손상된 경우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갈등과 음주문제 중 사회적 기능 손상과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부모- 자녀간의 폐쇄적이고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청소년 자녀의 갈등으로 인한 지각 및 잦은 결석 등의 음주문제를 보고한 황수영(2000)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가족기능요소인 양육방식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를 독립된 개체로 인정하며 강요보다는 개인존중과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일컫는 경우로 양육방식과 음주문제와는 유의하지가 않았고, 또한 음주문제 중, 행동상의 문제, 가족 및 대인관계 손상과도 유의하지 않았다. 다만 양육방식은 음주문제 중 사회적 기능 손상과의 관계에서 양육방식의 점수가 낮을수록 과음으로 인한 결강이나, 성적취득, 또는 일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가 증가하는 경계역 수준의 유의성을 보였다. 이는 부모의 적절하지 못한 감독, 너무 심하게 자유방임형 양육과 규칙과 한계점을 전적으로 부모가 결정하는 전제적 양육방식은 자녀들의 비행, 약물남용등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황수영, 2000; Friedman et al., 1986)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호산나(2003)의 연구에서 자신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고 지지해 주는 양육방식의 점수가 높은 가정일수록 음주문제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는 유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음주행동, 음주량의 음주문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술을 더 많이 마시며 또한 그에 따른 음주문제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박종순(2000), Hilton(1987)의 연구에서도 음주관련 문제의 실태를 살펴본 결과 음주 후 불쾌한 경험의 유무에서 남학생이 음주 후 불쾌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70.4%, 여학생 48.6%로 경험율에서 남녀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나타난 것과 유사하였다. 또한, 김용석(1999)의 연구에서도 음주문제를 결석, 과제수행 정도 등으로 파악해본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음주문제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는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이 한 번에 마시는 술의 양이 소주 10잔(맥주 7캔)이상을 마시는 남학생은 35.0%, 여학생 12.6%이었고 소주 5-9잔(맥주 4.5-6캔)을 마시는 남학생은 34.0%, 여학생 28.1%로 한번에 소주 5-9잔(맥주 4.5-6캔)을 마시는 대학생 수는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는 윤혜미(2000)의 연구에서 남성이 한번 술을 마실 때 더 많은 양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대학생의 음주 습관의 성차에서 서경현 등(2003)의 연구결과 남학생의 29.1%, 여학생 8.5%가 한 번에 술을 마시게 되면 취할 때 까지 계속 술을 마신다고 보고했다. 이는 본 연구 남학생 35.0%, 여학생 12.6%가 한 번에 소주 10잔 이상을 마시는 양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대상과 조사 시기에 따른 차이라고 생각하며 차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대학생들의 음주문제의 심각성을 말해주는 것이므로 이런 대학생의 음주문제에 필요한 적절한 대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연구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그 대상이 특정지역의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전체대학생으로 일반화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자기기입식 조사로 조사대상자의 회상과 지각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응답의 정확도에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셋째, 가족기능을 측정하는 도구는 외국의 척도들을 재구성한 것으로 번안 과정에서 처음의도가 그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가족 기능이 대학생의 음주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혀 가족기능의 긍정적인 변화가 대학생들의 음주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학생의 음주문제의 감소를 위해서는 개인의 가족기능을 정확하게 사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개인의 가족기능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개인 및 가정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의 음주 특성과 가족기능을 파악하고 가족기능과 음주문제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2008년 9월 2일부터 9월 25일까지 G, J 지역에 소재한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437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설문지 구성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학업특성, 건강관련행위 및 대학생 음주 관련 특성, 가족기능, 음주문제 측정도구 등으로 이루어졌다. 자료 분석은 t-검정, 분산분석, 상관분석, 다변량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단순 분석결과 대학생들의 음주문제에 관련이 있는 요인은 종교, 가족관계, 거주상태, 부모직업유무, 생활형편, 전공, 학년, 동아리 활동, 대학생활 만족도, 흡연유무, 운동유무, 부모음주력, 음주에 대한 부모태도, 음주량, 친밀감, 갈등, 양육방식이었다($p<0.05$).

다변량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가족기능 특성 중 가족 간의 친밀감이 높을수록 대학생의 음주문제 중 행동상의 손상, 가족 및 대인관계 손상, 사회적 기능 손상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p<0.05$). 또한 가족 간의 갈등이 심할수록, 음주문제 중 행동상의 손상, 가족 및 대인관계 손상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p<0.05$), 양육방식은 음주 문제 중 사회적 기능 손상과 경계역 수준의 유의성을 가졌다($p<0.1$). 전체 음주문제에 대해서는 친밀감이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이외에도 성별, 흡연, 음주량 등이 대학생의 음주문제와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p<0.05$).

결론적으로 대학생의 음주문제에 있어서는 개인적 특성 외에 친밀감, 갈등, 양육방식 등의 가족기능 특성이 유의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대학생의 음주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 및 가족기능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권지현 (1996). 부모의 음주가 자녀의 약물 사용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김의숙 (2002). 대학생의 스트레스가 음주행동 및 음주관련문제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전북.

김용석 (1998). 청소년의 문제성 음주와 정신 증상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7집, 27-42.

김용석 (1999). 국내의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도구의 비교를 통한 한국성인의 알코올 사용 장애에 관한 역학조사, 한국사회복지학, 통권(37).

김용순 (2003). 청소년 음주 행위와 관련 요인 분석 : 환경적 요인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박봉진 (2001). 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한 가족기능과 우울성향 및 음주·흡연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박종순 (2000). 대학생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부정민 (1999). 사회적 요인이 청소년의 음주·흡연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제주.

신행우 (1998). 성격과 음주동기가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울.

서경현, 김성민, 정구철 (2006). 행동활성화 및 행동억제 체계, 성별, 음주가족력과 대학생의 음주동기 및 문제음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3), 607-626.

송은하 (1996). 알콜중독자 자녀의 음주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윤주혜 (2001). 가족기능이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경기.

윤혜미 (2000). 대학생 음주행동과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충북대학교 생활연구소 생활과학연구센터, 제3호, 1-15.

이병철, 김연자, 이고봉, 이영한, 최상모 (1991). 가족요인의 차이에 따른 대학생의 음주양상. 가정의 제 12권, 제 10호, 51-60.

- 임윤용 (2005). 알코올 중독자가 지각한 가족기능에 따른 알코올 중독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 대구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대구.
- 한국 보건사회 연구 (2003). 건강길라잡이.
- 호산나 (2003). 대학생의 음주문제와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및 보호 요인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충남.
- 황수영(2000). 정상 및 비행청소년의 부모 양육태도, 가족기능과 비행경향성의 차이.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광주.
- Friedman, A. S., Glickman, N. W., & Kovach, J. A.(1986). The Relationship of Drug Program Environmental Variables to Treatment Outcome. The American Journal of Drug and Alcohol Abuse, Vol. 12(1-2).
- Garbarino, J., Sebes, J., & Schellenbach, C.(1984). Families at Risk for Destructive Parent-Child Relations in Adolescenc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Hilton, M. E.(1987). Drinking patterns and drinking problems in 1984 : Results from a general population survey. Alcoholism New York: Guilford Press. 181-226.
- Noller, P.(1992). ICPS Family Functioning Scales (ICPS-FFS), Handbook of family measurement techniques.
- Wechsler, H., Davenport, A., Dowdall, G., Moeykens, R., & Castillo, S.(1994). Health and behavior consequences of binge drinking in colleg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72, 1672-1677.